

한국인 거주 미국주택의 공간별 주생활행위와 공간구성 및 사용행태

- 미주리 주 콜롬비아 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welling Behavior Patterns and Space Planning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 Focused on Columbia, Missouri -

Author 이지현 Rhee, Jee-Heon / 정회원, 위스컨신-밀워키대학교 건축과 박사과정
신경주 Shin, Kyung-Joo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Ph.D.
장상옥 Jang, Sang-Ock / 정회원,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가정학박사*

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housing environment as well as the living behaviors of Korean people who reside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includes examination of dwelling units, especially focusing on dwelling behaviors by space types, arrangement and use of the space, and the according residence patterns of the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and survey method were conducted; photography were taken as a visual evidence; and results were analyzed by researchers. This study strongly indicates that most of Koreans try to keep their own way of living in foreign cultures and rather readjust the housing spaces and living patterns to their own cultur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hav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all Korean families living in foreign cultures, because a convenience sample was used. Although studies of Korean families in Columbia, MO may not provide information that can be generalized to the entire population of Koreans overseas, we expect that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sight in understanding and estimating the future trends in residential planning for Koreans.

Keywords 공간별 주생활행위, 공간구성, 공간사용행태, 미국주택
Dwelling behavior by space types, Arrangement of space, Use of space, American Hous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다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 접목의 결과로 새로운 문화가 생산되는 오늘날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주거문화가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는 주생활 문화의 지속 및 변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된다. 이질적 배경의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문화가 접했을 때 나타나는 적응과정 및 분석결과는 전통적 요소 파악의 중요 사항¹⁾이므로 이질적 문화 배경에서의 한국인의 주생활 파악을 통하여 우리 주거문화의 아이덴티티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방 이후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거공간에 서구의 주생활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간과하기 어려워 특히 미국 주생활문화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라

포포트는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생활양식을 들고, 이는 문화, 민족정신, 세계관, 국민성 등의 구성 요소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았다. 주거 측면에서 본 주생활양식은 행위적 측면에서 주택평면과 관련된 행동양식, 공간사용방식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행위와 결부시켜 해석할 수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주생활문화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주생활문화의 맥락 속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공간구성과 공간사용행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사용자 공간 사용 행태에의 영향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거 환경 행태 요소가 지속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ojang@gnu.ac.kr

1) 정무용, 건축 문화와 환경 행태, 건축 제45권 6호, 2001, p.11

2)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05, p.19; 이도영, 주택의 문화적 비교분석을 위한 현실적 접근, 건축 제42권 7호, 1998, p.54

변용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한국인의 주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점 또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미국 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이 나아가야 할 주생활의 방향을 보완하여 앞으로의 공간계획이나 실내디자인 측면에 반영함과 더불어 한국 주생활문화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가 미국 미주리 주 콜롬비아 시에 한정되어 해외 거주 한국인의 주생활양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의 한국인의 주생활문화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미국주택의 공간별 주생활행위와 공간구성 및 사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이 거주하는 미국주택의 공간별 주생활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한국인이 거주하는 미국주택의 공간구성 및 사용행태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지역 및 대상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미국 중부에 위치한 미주리(Missouri)주의 컬럼비아(Columbia)시로 기후는 서울과 유사하다. 컬럼비아시는 인구 95,000명의 소도시이며, 30,000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미주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도시이다. 컬럼비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주로 학생 가정, 교환교수 가정 및 교포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이러한 한국인 가정들을 모두 포함하되, 미혼학생 가정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1인 가정은 배우자가 타 지역에 살며 정기적으로 컬럼비아 시를 방문하는 가정에 한정했다.

2.2. 조사도구 및 조사내용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조성희, 1996; 이희봉, 1998; 장상옥·신경주, 2003; 2004)를 기초로, 미주리주 콜롬비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열 명의 한국인을 심층 면접하여 미국주택에서의 주생활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표 1> 조사내용

조사 항목	구체적 내용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가족 수
주거특성	주택특성(주택종류, 침실 수, 주택면적, 거주지), 거주특성(현주택 거주기간, 미국 총 거주기간, 총 이사 횟수, 월임대료, 주택 선택 시 고려 요소, 주택선택 경로)
공간별 주생활행위	단란행위, 접객행위, 식사행위, 공부행위, 세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실, 부엌/식당, 침실, 욕실, 세탁장, 발코니 등을 다룬다.
공간구성 및 사용행태	거실, 부엌/식당, 침실, 욕실, 세탁공간의 공간구성 및 주생활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거특성, 공간별 주생활행위, 공간구성 및 주생활 현황 등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표 1>과 같다.

2.3.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대상은 미주리대학의 한인 주소록 및 컬럼비아 시 한인 교회의 주소록에 등록된 한국인 중 미혼학생 가정을 제외한 가정이다.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설문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였으며, 배부 후 3일 뒤 일차 회수,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차로 회수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주생활을 다각도로 관찰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정 중 협조 의사를 밝힌 7가구는 설문지 회수 시 가정을 방문, 관찰 및 사진 촬영을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 등을 제외한 10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시기는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다중응답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 한국인 가정의 특성

조사대상의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주택 및 거주 관련 특성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을 보면, 거주 주택의 주생활특성 및 불만족 사항의 파악이 용이한 여성의 비율을 높여 표집 하였으므로 여성(83.5%)이 많았고, 30-40대의 비율이 높았다(31세-40세는 48.5%, 41세-50세는 28.2%, 30세 이하는 15.5%). 학력은 대졸이상(97.1%)의 고학력자가 대부분이며, 직업은 전업주부(50.0%) 이외에 전문직(19.6%)과 학생(16.7%)이 많았고, 사무·관리직(8.8%) 및 판매·서비스직(4.9%) 등도 포함되었다. 월평균 가정소득은 \$3,001-\$4,500(301만원-400만원)(37.6%), \$3,000 이하(300만원 이하)(35.5%)가 많았고, \$4,501-\$6,000(451만원-600만원)(18.3%), \$6,001 이상(601만원 이상)(8.6%)이었다. 가족 수는 4명(43.1%)과 3명(24.5%)이 많았고, 약 30%는 1-2명과 5명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사대상은 상당수가 경제수준이 높고 고학력의 3, 4인 가족의 30, 40대 여성이었다.³⁾

주거특성은 현재 거주 주택유형은 2호 연립(46.6%), 아파트(39.8%), 독립주택(13.6%)이며⁴⁾ 침실 수는 80%이

3)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변인의 상관성은 본 연구의 결과 도출과정에서 배제되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도시인 미주리 주 콜롬비아 시에서 제한된 조사대상을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의 편중된 분포로 인해 카이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에도 사회·경제적 변인과 주생활행위 및 사용행태의 상관관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대량의 표본 조사를 할 수 없는 해외 거주자 대상 연구의 한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상이 2, 3실이었으며 4실과 1실의 비율은 낮았다.5) 주택 면적은 93m²-140m²(1,001feet²-1,500feet²)가 35.1%, 93m² 이하(1,000feet² 이하)(28.4%), 141m²-185m²(1,501feet²-2,000feet²) (20.3%), 186m² 이상(2,001feet² 이상)(16.2%)의 순이었다. 현 주택 거주기간은 8개월 이상-1년 미만(55.3%), 1-2년 (27.2%), 3년 이상(17.5%)으로 나타났다. 이사 횟수는 아직 없음(50%), 1회(21.6%), 4회 이상(11.8%), 3회(9.8%), 2회(6.9%)이었다. 임차인 경우(82.9%)의 임대료는 \$601-\$700 (61-70만원)(41.4%)과 \$701 이상(70만원 이상)(24.1%)이 많았고, \$500 이하(50만원 이하), \$501-\$600(51-60만원)의 비율은 각각 17.2%이었다.

주택선택 시의 고려요소는 임대료(50.5%), 안전(34.3%)과 학군(32.2%)을 중시하여 선택하였고, 선택 경로는 지인 소개(68.7%), 본인이 직접 선택(27.5%), 학교의 추천(3.9%)으로 나타나 거주경험이 많은 지인에 의한 선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4. 공간별 주생활행위

미국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주생활행위의 발생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한 주생활행위인 단란, 접객, 식사, 공부, 세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다<표 2>.

단란 행위는 거실(90.0%)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부엌/식당(21%)과 주침실(5.0%)에서도 발생하였다. 보편적으로 한국 주택의 거실은 가족 단란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나6) 아파트 안방에서도 가족 단란이 이루어지는7) 접미 비추어볼 때 이질문화권에서도 이전(한국 거주 시)과 같은 공간사용 방식이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목적적인 주침실의 사용방식은 부부만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개인영역으로써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는8) 미국인의 주침실 사용방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접객행위는 인원이 적은 경우는 거실(53.3%)과 부엌/식당(45.5%)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비슷하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거실(87.8%)이 주로 이용되었고 부엌/식

<표 2> 공간별 주생활행위

범인	구분	빈도(%)	
단란	거실	90(90.0)	
	부엌/식당	21(21.0)	
	주침실(master bedroom)	5(5.0)	
	발코니	1(1.0)	
접객	소수	거실	53(53.5)
		부엌/식당	45(45.5)
	다수	발코니	1(1.0)
		거실	86(87.8)
		부엌/식당	11(12.2)
식사	거실	17(16.7)	
	부엌/식당	85(83.3)	
공부	거실	25(28.1)	
	부엌/식당	7(7.9)	
	master bedroom	12(13.5)	
	침실1	45(50.6)	
세탁	세탁	부엌/식당	2(2.0)
		욕실	2(2.0)
	건조	세탁실	94(93.1)
		공동세탁장	3(3.0)
세탁	건조	거실	8(8.2)
		부엌/식당	2(2.0)
		master bedroom	1(1.0)
		침실1	13(13.3)
	세탁	욕실	2(2.0)
		세탁실	50(51.0)
		공동세탁장	3(3.1)
		발코니	19(19.4)

당(12.2%)에서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많은 손님의 접대 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거실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9) 많은 손님의 파티인 경우, 개인주의 성향과 입식 양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침실을 제외한 전 공간을 개방하여 집안의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나10), 집합주의 성향과 좌식양식을 가진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 공간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식사행위의 경우는 부엌/식당(83.3%)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거실에서도 일부(16.7%) 이루어져서 한국에서의 공간 사용실태11)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공부행위는 침실1(5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거실에서 28.1%, 부엌/식당에서도 7.9% 발생하였다.

세탁행위는 세탁공간에서 대부분(93.1%) 이루어졌으며, 공동세탁장은 소수(3%)만 이용하였다. 공동세탁장 이용이 미국인에 비해서 적은 것은 미국 거주 일본인의 경우와 같이 세탁을 위해 주호 외부로 나가는 불편과, 비용, 비위생 등의 이유로 인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서 이었는데12) 한국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4) 조사대상 지역 미주리 주 콜롬비아 시는 대학도시의 특성 상 일시적 거주자가 장기 거주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주택 유형의 분포가 미주리 주의 주택분포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5) 미주리 주 주택의 실 수는 3실(7.8%), 2실(2.7%), 1실(1.2%)이 적고 4실 이상의 비율이 높으나(U.S. Census Bureau, 2000), 일시적 거주자를 포함한 조사대상의 거주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방 수로 파악되었다.
 6) 김미희·이유미,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2005, p.24
 7) 강형구,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2005, p.5
 8) 주거학연구회, 주거·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 1994, p.276; Altman, I. &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le Publishing Company, 1980, p.196

9) 이영심, 해외거주 한인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46권 1호, 2007, p.57
 10) 장상옥·신경주, 재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9호, 2003, p.74
 11) 김미희·이유미,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2005, p.24
 12) 伊東理恵,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洗濯様式, 家庭學研究, 第40

다고 판단되었다. 건조행위는 세탁실(51.0%)이 가장 많았고, 발코니(19.4%), 침실(13.3%), 거실(8.2%)의 순으로 적어졌으며 이외에도 부엌/식당, 주침실, 욕실 등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미국 거주 일본인과 같은 경향이였다.¹³⁾

종합하여 공간별 주생활행위를 보면, 거실에서는 단란 행위와 다수 인원의 접객이 주로 이루어졌고, 소수의 접객은 절반가량, 식사, 공부, 세탁물 건조 행위가 일부 이루어졌다. 부엌/식당에서는 식사행위가 주가 되나, 소수 접객은 반 정도이고, 단란 행위, 공부행위가 일부 이루어졌고, 세탁과 건조행위는 매우 적게 이루어졌다. 침실에서는 취침 이외에 공부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단란, 세탁물 건조행위가 일부 발생하였다. 세탁실에서는 세탁행위와 건조행위가, 발코니에서는 세탁물 건조, 접객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공간 사용방식과 큰 차이가 없이 거실은 다목적의 공간으로, 부엌/식당은 식사와 단란, 접객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발코니에서 세탁물 건조가 일상적인 한국과 달리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주택 특성상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여러 공간에서 세탁물의 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5. 공간구성 및 사용 형태

5.1. 현관

현관의 형태, 단차, 주 출입구, 신발 탈착여부, 신발 벗는 장소, 신발 수납장소, 실내화 착용여부, 실내 탈화 시문제점, 현관의 불만족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

현관의 형태는 거실과 연결된 공간의 일부(87.5%)가 가장 많았고 독립된 현관은 12.5%로 대부분이 거실과의 영역 구분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현관의 단차는 없는 경우가 90.5%, 있는 경우가 9.5%로 약 10% 가까운 주택에서는 단차가 나타났으나, 대부분 단차가 없었다. 그러나 생활양식이 다른 미국인의 출입시는 신발 신는 것을 허용하여, 현재 거주하는 문화의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관 사용행태에서 주 출입구는 현관이 70.5%, 차고 쪽(18.1%), 현관과 차고(11.4%)로 2/3이상이 현관으로 출입하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차고 쪽으로 출입하였다. 차고 쪽에는 신발을 벗어두어도 미관상 나쁘지 않은 점, 신발장을 둘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출입구로 선택되고 있었다. 실내에서 신발의 탈착 여부는 벗음(95.2%)이 가장 많았고, 신음(1.0%), 벗으나 외국인만 신도록 함(3.8%)으로 거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신을 벗고 생활하고

<표 3> 현관의 구성, 사용 형태 및 불만족 사항

범인	구분	빈도(%)
형태	독립된 현관	13(12.5)
	거실과 연결된 공간의 일부	91(87.5)
단차	있음	10(9.5)
	없음	95(90.5)
주출입구	현관	74(70.5)
	차고 쪽	19(18.1)
	현관과 차고 쪽	12(11.4)
신발 탈착여부	벗음	100(95.2)
	신음	1(1.0)
	외국인만 신도록 함	4(3.8)
신발 벗는 장소	현관	78(78.0)
	침실	4(4.0)
	거실	5(5.0)
	차고	9(9.0)
벗은 신 수납장소	현관 안+차고 안	4(4.0)
	현관바닥	34(32.4)
	현관 옆 장	17(16.2)
	신발장(구입함)	31(29.5)
	차고바닥	5(4.8)
	차고 옆	7(6.7)
실내화 착용여부	현관+차고	5(4.8)
	현관+신발장	6(5.7)
	모든 공간에서 신음	22(21.0)
탈화 시문제점	일부공간(부엌, 욕실)만 신음	31(29.5)
	신지 않음	52(49.5)
불만족 사항	내키지 않음	4(3.8)
	벗은 신발 보관문제/신발장 없음	71(68.3)
	없음	29(27.9)
미관상(벗은 신발 보기 싫음)	미관상(벗은 신발 보기 싫음)	5(6.4)
	위생상(출입 시 모래, 먼지 오염)	10(12.8)
	공간구분 안됨(거실, 현관 구분)	18(23.1)
	바닥재료(타일 아님)	1(1.3)
	면적 협소	29(37.2)
	신발장 없음	15(19.2)
소계	78(100.0)	

있어 실내에서 신을 신고 생활하게 된 미국주택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신발을 벗는 경우, 장소는 현관이 78%로 가장 많았고, 차고(9%), 침실(5.0%), 현관+차고, 거실도 각각 4%로 나타나 침실과 거실 등의 실내에서도 벗는 비율이 약 10% 되었다. 벗어둔 신발의 수납 장소는 현관 바닥이 32.4%로 가장 많았고, 구입한 신발장에 수납이 29.5%, 현관 옆장(보통 coat closet)에 수납이 16.2%로 나타나 상당수가 출입이 편리한 현관 부근에 수납을 하였다. 이외에 현관+신발장(5.7%), 차고 옆의 장소(6.7%), 차고 바닥, 현관+차고(각각 4.8%) 등의 여러 곳에 수납하여 신발을 두는 일정한 장소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실내화 착용 여부는 신지 않음과 신음이 각각 반 정도씩 나타났



<그림 1> 신발 수납 장소

卷 2號, 1994, p.142

13) 伊東理恵,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洗濯様式, 家庭學研究, 第40卷 2號, 1994, p.141

다. 신는 경우의 장소는 욕실, 부엌 등 일부 공간에서 신음(29.5%), 모든 공간에서 신음(21%)으로 반 정도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벗은 신발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어수선하고 정돈이 안된다는 비율이 높았으나(68.3%), 27.9%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3.8%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주택의 현관은 면적이 협소하고(37.2%), 실내공간과 현관 간의 영역 구분이 안되며(23.1%), 신발장이 없기(19.2%) 때문에 불만족하였다.

5.2. 거실

거실에서는 공간구성 방식, 소파배치 방식, 기거양식,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4>.

<표 4> 거실의 구성, 사용 행태 및 불만족 사항

변인	구분	빈도(%)	
공간구성 방식	L+D+K	11(10.6)	
	L+DK	42(40.4)	
	LD+K	21(20.2)	
	LDK	30(28.8)	
소파배치	소파 뒷면을 벽에 붙여 배치	70(68.6)	
	거실중앙에 배치(벽에서 분리)	20(19.6)	
	이곳저곳에 자유배치	7(6.9)	
	의자/소파 없음	5(4.9)	
기거양식	주로 소파/의자에 앉음	72(68.6)	
	바닥/의자 이용이 반반	29(27.6)	
	주로 바닥에 앉음	4(3.8)	
불만족 사항 (다중응답)	있음	평면구성	11(11.2)
		면적	24(24.5)
		조명	41(41.8)
		콘센트 수 위치	6(6.1)
		냉난방	5(5.1)
		방음문제	8(8.2)
		기타	3(3.1)
	소계	98(82.3)	
없음	21(17.7)		

거실의 공간구성 방식은 L+DK가 40.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LDK(28.8%), LD+K(20.2%), L+D+K(10.6%)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일반적인 평면유형인 L+DK형¹⁴⁾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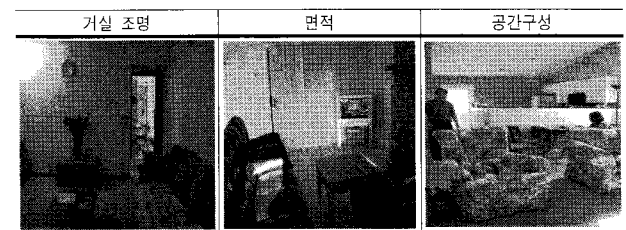
소파 배치 방식은 약 70%가까이가 소파의 뒷면을 벽에 붙여 배치하였고, 거실 중앙에 배치한 경우는 19.6%, 자유로운 분산배치는 6.9%, 노퍼니쳐형은 4.9%이었다. 소파의 뒷면을 벽에 붙여 배치한 형식이 많은 것은 바닥공간을 확보하여 필요 시 좌식생활을 쉽게 하기 위함이거나 등 뒤의 통행감에 불안감을 느끼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통적 사고 때문으로도¹⁵⁾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인들의 배치형식과 같은 거실 중앙 배

치도 20%정도 나타나 현지 문화에의 동화 성향도 다소 있다고 추측되었다. 주택의 거실 면적 또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도 추측 되었으나 결론을 낼 수는 없었다.

기거양식은 주로 소파나 의자에 앉는 입식(68.6%), 의자와 바닥에 앉는 것이 반반(27.6%), 좌식(3.8%)으로 나타나 70%정도는 입식, 약 30%는 입식과 좌식의 혼용으로 거실에서의 좌식 성향은 매우 낮았다.

거실공간에는 상당수(82.3%)가 불만족하였고, 불만족 사항은 조명문제(40.6%)가 가장 컸으며, 이는 거실에 높은 조도의 천장 조명을 선호하는 한국인들과 낮은 조도의 간접 조명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¹⁶⁾ 면적(23.8%)의 불만족은 작은 거실 면적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조사 대상들이 개인소유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임차된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이어 공간구성(10.9%), 방음(7.9%)이었는데, 공간구성에서는 부엌이 거실에 독립되지 못하여 불편하고, 이외에 콘센트 수와 그 위치, 냉·난방, 방음 문제가 지적되었다<그림 2>.



<그림 2> 거실의 불만족 사항

5.3. 부엌/식당

기거양식은 식탁+의자를 이용한 입식이 87.6%로 가장 많았고 부엌카운터에서의 식사가 7.6%, 일정하지 않음 2.9%, 좌식밥상이 1.9%로 나타났다<표 5>. 대부분이 입식으로 식사를 하였으나 극히 소수는 좌식이었는데, 단

<표 5> 부엌/식당의 사용 행태 및 불만족 사항

변인	구분	빈도(%)	
기거양식	식탁+의자	92(87.6)	
	부엌 카운터	8(7.6)	
	좌식밥상	2(1.9)	
	일정하지 않음	3(2.9)	
불만족 사항 (다중응답)	있음	평면구성	1(1.3)
		면적	16(20.0)
		작업대(높이, 높이)	20(25.0)
		수납장(높이, 구획)	21(26.3)
		환기팬	13(16.3)
		조명	8(10.0)
		기타	1(1.3)
		소계	80(77.7)
없음	23(22.3)		

14) 박남희·이준민,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별 평면계획 내용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3호, 2006, p.60

15) 이희봉, 재미 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4권 11호, 1998, p.112

16) 신정주·장상욱·이지현, 미국 지방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와 거주 한국인의 만족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6호, 2008, pp.47-48

기 거주자의 경우는 비용이나 이사 시를 고려하여 식탁 등의 가구를 구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부엌/식당에 대해서는 약 80%는 불만족하였으나, 22.3%는 불편하지 않고 만족한다고 하였다. 불만족 사항은 수납장의 높이나 구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대 넓이와 높이의 부적절(19.4%), 부엌 면적(15.5%), 환기팬(12.6%), 조명(7.8%)의 순이었다. 작업영역 관련 불만사항도 많았는데, 식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해 식기 및 조리기구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므로 수납장 내부 구획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또한 미국인의 신체 치수에 적합한 작업대에서 한국인이 작업하게 되어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5.4. 침실

기거양식은 침대취침의 입식(89.5%)이 가장 많았으나 입식과 좌식의 혼용도 일부(8.6%) 있었고, 바닥취침도 소수(1.9%) 나타났으나 대부분이 입식이었다<표 6>. 침실 공간은 약 70%가 불편하다고 인지하였고, 나머지 30%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불만족 사항 중에서는 조명문제(19.8%)가 가장 컸으며, 불박이 옷장의 크기(13.8%), 방 면적(12.9%), 창 크기(11.9%), 냉·난방(10.9%), 방음(9.9%)으로 나타났다. 미국주택의 침실은 한국주택에 비하여 창의 크기가 작아 채광이 불충분하여 어둡고, 층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냉난방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가 이용되므로 기후나 환경적 조건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건축되는¹⁷⁾ 미국주택은 에너지 비용의 절약 측면에서 개구부가 작은 폐쇄적인 평면이 유리하므로¹⁸⁾ 창의 크기가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계설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 환경을 이용한 한국의 주택은 일조와 채광에 유리한 큰 창이 일반적이므로 미국주

<표 6> 침실의 사용 형태 및 불만족 사항

변인	구분	빈도(%)	
기거양식	침대 취침	94(89.5)	
	침대/바닥 이용이 반반	9(8.6)	
	바닥 취침	2(1.9)	
불만족 사항 (다중응답)	있음	평면구성	5(5.6)
		면적	13(14.4)
		조명	20(22.2)
		불박이 옷장(크기 등)	14(15.6)
		창 크기	12(13.3)
		냉·난방	11(12.2)
		방음	10(11.1)
		기타	5(5.6)
	소계	90(73.2)	
없음	33(26.8)		

17) Altman, I. &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le Publishing Company, 1980, p.186

18) 이도영, 한인이민가정의 주거조건, 가설검증을 통한 이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10호, 1998, p.14

택의 작은 창 크기에 불만족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5.5. 욕실

먼저 입욕방식, 입욕횟수, 입욕시간을 통하여 미국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입욕행위를 살펴보고<표 7> 욕실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7> 입욕행위/욕실의 사용 형태

변인	구분	빈도(%)
입욕방식	샤워	91(87.5)
	욕조에서 목욕	5(4.8)
	샤워+목욕	8(7.7)
입욕횟수	매일	72(70.6)
	하루에 2회	10(9.8)
	일주일에 3-4회	18(17.6)
	일주일에 1회	2(2.0)
입욕시간	아침	30(30.0)
	저녁	25(25.0)
	아침 혹은 저녁	45(45.0)

입욕방식은 샤워식이 87.5%로 가장 많았고, 욕조목욕이 4.8%, 샤워와 욕조목욕의 혼용은 7.7%로 샤워식이 지배적이었다. 입욕회수는 매일(70.6%)이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3-4회(17.6%), 하루에 두 번(9.8%), 일주일에 1회(2.0%)로 상당수는 매일 1회씩 샤워를 하고 있었다. 입욕시간은 아침 혹은 저녁이 45%, 아침 30.0%, 저녁 25%로 입욕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침 시간대였다.

욕실공간의 특성은 욕실의 개수, 욕실의 구성 형태, 욕실의 만족사항. 불만족 사항으로 살펴보았다<표 8>. 욕실의 수는 2개가 48.5%로 가장 많았고, 1개(34%), 3개 이상(9.7%), 2개 반(7.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86.7%의 아파트가 2개의 욕실을 갖는 것으로 연구된 우리나라 중규모 아파트의 욕실 수¹⁹⁾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이다. 욕실의 형태에서 첫 번째 욕실은 욕조+세면기+변기형이 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욕조+샤워부스+세면기+변기형(20.2%)이었다. 욕조, 세면기, 변기의 조합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었으나 이에 더하여 샤워부스가 부가되는 정도 낮지 않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욕실부터는 샤워부스+세면기+변기형이 35.7%, 세면기+변기형이 32.1%, 욕조+샤워부스+세면기+변기형이 25%이며, 욕조+세면기+변기형(7.1%)은 가장 적었다. 세 번째 욕실의 경우는 샤워부스+세면기+변기형과 욕조+샤워부스+세면기+변기형이 반반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욕실의 만족 사항으로는 충분한 욕실 수(48.2%), 욕실 면적(33.3%), 조명(32.2%), 수납공간(31.0%)을 들었고 이외에 욕실 공간구성(18.4%), 욕실바닥재(10.3%), 설비(9.2%), 배수구 없음(1.0%)이었다. 만족사항을 지적하는

19) 신경주·황윤정·이지현, 중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욕실디자인 만족도와 선호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5호, 2008, p.15

<표 8> 욕실 공간의 구성과 만족 사항 및 불만족 사항

변인	구분	빈도(%)		
욕실 개수	1개	35(34.0)		
	2개	50(48.5)		
	2개 반	8(7.8)		
	3개 이상	10(9.7)		
구성 형태	첫째	세면기+변기	4(3.8)	
		욕조+세면기+변기	77(74.0)	
		샤워부스+세면기+변기	2(1.9)	
		욕조+샤워부스+세면기+변기	21(20.2)	
	둘째	세면기+변기	9(32.1)	
		욕조+세면기+변기	2(7.1)	
		샤워부스+세면기+변기	10(35.7)	
		욕조+샤워부스+세면기+변기	7(25.0)	
	셋째	샤워부스+세면기+변기	2(50.0)	
		욕조+샤워부스+세면기+변기	2(50.0)	
		만족사항 (다중응답)	욕실 면적(크기)	29(33.3)
			욕실 수	42(48.3)
욕실 구성형태	16(18.4)			
조명	28(32.2)			
수납공간	27(31.0)			
배수구 없음	1(1.1)			
욕실 바닥재	9(10.3)			
욕실설비	8(9.2)			
기타	3(3.4)			
불만족 사항 (다중응답)	욕실 면적(크기)		19(18.6)	
	수납공간	25(24.5)		
	욕조 크기, 높이	12(11.8)		
	고정된 샤워	36(35.3)		
	욕실 바닥 배수구 없음	63(61.8)		
	욕실 바닥재료	17(16.7)		
	난방 안 됨	4(3.9)		
	설비	2(2.0)		
	바닥에 물을 못 버려 청소 불편	48(47.1)		
	소계	105(100.0)		

한편 불만족 사항을 지적한 비율이 다른 공간에 비하여 매우 높았는데, 불만족 사항은 바닥배수구 없음(61.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욕실 청소 시 불편(47.1%), 고정 샤워헤드(35.3%), 수납공간(24.5%), 욕실면적(18.6%), 욕실바닥마감재(16.7%), 욕조의 크기 및 높이(11.8%), 난방 안 됨(3.9%), 설비 규격(2.0%)이었다. 이 중 가장 불편을 많이 호소한 바닥배수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욕실과 달리 미국주택의 욕실에서는 통상 배수구가 없고, 욕실 바닥재도 리놀륨, 목재, 카펫인 경우가 많으므로 물 사용이나 청소가 불편하기 때문이며, 물청소보다는 세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야 하는 욕실의 청소 방법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샤워헤드가 고정된 경우 샤워기를 자유로이 움직여 샤워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행위가 제약 받는 점도 불만족이었다.

5.6. 세탁 공간

세탁빈도는 일주일에 3회 전후가 51.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회가 26%, 매일이 19.2%, 2주일에 2회가 2.9%로 나타나 반 정도가 일주일에 3회 전후로 세탁을 하고 있었다<표 9>.

<표 9> 세탁공간의 사용 행태 및 불만족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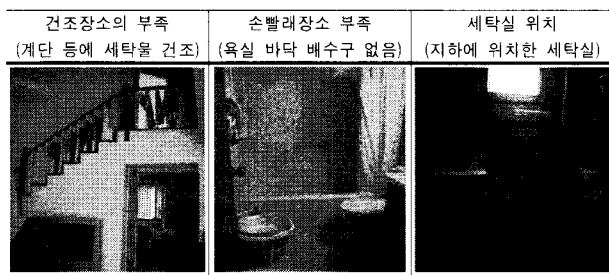
변인	구분	빈도(%)	
세탁빈도	매일	20(19.2)	
	일주일에 3회 전후	53(51.0)	
	1주일에 1회	27(26.0)	
	2주일에 1회	3(2.9)	
	기타	1(1.0)	
세탁장소	주택 내 세탁기	94(89.5)	
	공동세탁장	건물 안	9(8.6)
		단지 안	2(1.9)
손빨래	여부	함	64(58.7)
		안함	43(41.3)
	장소	욕실	58(90.6)
		부엌	5(7.8)
		세탁실	1(1.6)
		기타	1(1.6)
건조	방식	전기 건조기	39(37.5)
		전기건조기+빨래대	36(34.6)
		전기건조기+옷걸이	5(4.8)
	장소	빨래대	24(23.1)
		거실	1(1.2)
		부엌/식당	5(6.0)
		세탁실	74(88.1)
		발코니/외부	4(4.8)
		미관상	8(21.6)
		위생상	10(27.0)
빨래대 문제	적절한 장소 부족	18(48.6)	
	설비(크기 작음, 입수어려움)	6(16.2)	
	불만족 사항	있음	독립세탁실 없음
건조장소 부족			37(46.8)
손빨래 장소 부족			26(32.9)
세탁실 위치			6(7.6)
소계			79(76.7)
없음	24(23.3)		

세탁 장소는 주택 내의 세탁기(89.5%)이며 나머지는 공동세탁장으로 대부분이 주택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공동세탁장 이용 시 위치는 거주하는 건물 안이 8.6%, 단지 안이 1.9%로 자신의 거주 주택과 가까운 곳을 이용하였다. 손빨래는 하는 경우가 58.7%이며, 안함이 41.3%로 약 60% 가까이가 손빨래를 하였다. 손빨래 경우의 장소는 욕실이 90.6%, 부엌(7.8%), 세탁실(1.6%)로 대부분 욕실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서구인의 경우에는 욕실 세면대(52.6%) 뿐 아니라 부엌 싱크대(42.1%)에서의 손빨래 비율도 상당히 높았는데,²⁰⁾ 적절한 손빨래 공간이 부족한 미국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도 욕실 세면대에 비해 깊고 넓은 부엌 싱크대를 부족한 손빨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탁물건조방법은 전기건조기(37.5%), 전기건조기+빨래대(34.6%)로 전기건조기를 많이 이용하였으나 빨래대 병행 경우도 많았다. 한편 빨래대만 사용하는 경우가 23.1%이며, 나머지는 건조기+옷걸이(4.8%) 사용이었다. 건조기의 설치장소는 세탁실(88.1%)이 가장 많았고, 부엌/식당(6.0%), 발코니 등의 외부공간(4.8%) 순이었다.

20) 아쉽게도 해외에서 서구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욕실 공간 및 세탁 공간 사례는 찾을 수 없어 장상욱, 신경주의 한국에 거주하는 서구인의 주거공간 사용행태 연구를 참고하였다(장상욱·신경주, 재한 서구인의 주거공간 사용행태 및 요구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제20권 6호, 2004, p.19).

빨래대 사용 시의 문제점은 두는 장소(48.6%), 위생문제(27%), 미관문제(21.6%), 설비관련(16.2%)으로 나타났다. 위생문제로는 건조기 사용 시는 의류에 부착된 먼지제거가 용이하나 빨래대는 그렇지 못한 점, 실내로 세제 냄새 유출, 실내에 두어 일광건조가 되지 못하고 미관을 해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설비관련으로는 빨래대의 크기가 한국의 것에 비하여 작은 점, 입수하기 어려운 점 등에 불만족하였다. 세탁공간에 대해 상당수(76.7%)가 불만족하였는데 건조장소가 부족함에 반 정도(46.8%)가 불만족하였고, 손빨래장소 부족(32.9%), 독립세탁실 없음(12.7%), 세탁실 위치(7.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세탁 공간의 불만족 사항

6. 결론

미국 미주리 주의 한국인 거주 미국주택의 공간별 주생활행위와 공간구성 및 사용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간별 주생활행위는 거실에서는 단란과 접객 행위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부 식사, 공부, 세탁물 건조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엌/식당에서는 식사행위 외에 접객, 단란, 공부 행위가 이루어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도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유사하나 가사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아²¹⁾, 한국인의 거실 사용이 더욱 다용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침실에서는 취침과 공부 등 개인적인 행위 외에 단란, 세탁물 건조가 이루어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여 침실을 개인공간화하는 미국인과는 차별화되는 공간 사용이 보였다. 세탁실에서는 세탁과 건조행위가 이루어졌으나 기계건조보다 자연건조를 선호하는 한국인에게는 적절한 건조공간이 없어 주거 내 여러 공간에서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미국주택의 공간 중 특히 현관과 욕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하였는데 이 또한 한국 거주 서구인들에게서도 같은 경향이였다.²²⁾ 따라서 이들 공간은 서구와 주

생활문화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공간인 동시에 우리의 독창적인 주생활문화를 가진 공간으로 볼 수 있었다. 공간 사용방식은 한국에서와 유사하나, 거실은 조명, 면적, 공간구성, 냉·난방, 방음 문제가, 부엌/식당은 작업대와 수납장 관련 문제가, 침실은 조명, 수납장, 면적, 창크기를, 욕실은 바닥배수구 없음, 고정 샤워헤드, 면적 등의 문제가, 세탁공간은 적절한 건조장소 부족, 손빨래장소 부족 등의 문제가, 현관에서는 협소한 면적, 거실과 현관의 구분 불분명, 신발장 없음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타 문화권으로 이주한 한국인 거주자는 만약 이질적 문화권의 주거공간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미 내면화되어 편안해진 주생활문화를 즉각적으로 바꾸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 지속성이 강한 방은 기능과 성격이 느리게 변함²³⁾을 감안할 때, 우리 고유의 주생활문화는 쉽사리 변화되지 않음을 인식하여 타문화와 차별되는 독창적인 주생활문화가 우리의 공간속에 적절히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공간에서 서구인들과 다른 사용행태를 보인다거나 주거공간 내에서 신발을 벗는 등 한국인의 주생활 양식이 지속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주생활양식, 주생활의 방향을 조정하여 앞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주택의 공간계획이나 실내디자인 측면에 반영함과 더불어 한국 주생활문화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파주, 2005.
2. 주거학연구회, 주거·문화·디자인, 신광출판사, 서울, 1994.
3. Altman, I. &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ole Publishing Company, Three Lakes, WI, 1980.
4. Rapoport, A., Cross-Cultural Aspects of Environmental Design, In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Plenum Press, New York, NY, 1980
5.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2005 Annual Census Repor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at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Columbia, MO, 2005
6. 강형구,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2005.
7. 김미희·이유미,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2005.
8. 박남희·이준민,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별 평면계획 내용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3호, 2006
9. 신경주·장상옥·이지현, 미국 지방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와 거주 한국인의 만족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6호, 2008
10. 신경주·황윤정·이지현, 중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욕실디자인 만족도와 선호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5호, 2008

21) 장상옥·신경주, 제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권, 2003

22) 장상옥·신경주, 제한 서구인의 주거공간 사용 행태 및 요구 분석-

현관, 욕실, 세탁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0권 6호, 2004

23)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05, p.62

11. 이도영, 미국내 한인 이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조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4권 8호, 1998
12. 이영심, 해외거주 한인의 주거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46권 1호, 2008
13. 이희봉, 재미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11호, 1998
14. 장상옥·신경주, 재한 미국인의 주택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권, 2003
15. 장상옥·신경주, 재한 서구인의 주거공간 사용 행태 및 요구 분석-현관, 욕실, 세탁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0권 6호, 2004
16. 정무용, 건축문화와 환경행태, 건축 제45권 6호, 2001
17. 조성희, 문화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9호, 1996
18. 伊東理恵,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履床様式, 家庭學研究, 第39卷 2號, 1993
19. 伊東理恵, アメリカに居住する日本人の洗濯様式, 家庭學研究, 第40卷 2號, 1994
20. City of Columbia, <http://www.gocolumbiamo.com/>
21. The Weatherbase, <http://www.weatherbase.com/>
22. U. S. Census Bureau, <http://factfinder.census.gov/>, Profile of Select-ed Housing Characteristics: 2000

[논문접수 : 2009. 08. 18]

[1차 심사 : 2009. 09. 18]

[2차 심사 : 2009. 09. 30]

[게재확정 : 2009. 10. 09]